

◀하나님! 나의 하나님▶ **먼저 보여준 사랑**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사람이 찾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사람은 미국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앞에 섰습니다.

"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가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한 미국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눈 구멍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아가 어머니 품안에서 옷에 들들 말린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눈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는 허리를 꾸부려 아이를 끌어안은채 얼어 죽고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병사는 언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던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 하고, 그때 언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위에 쌓인 눈을 두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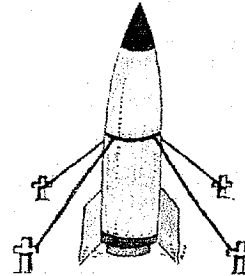
아이가 모를 때 희생한 어머니 사랑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롬5:8)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비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3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8월 4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내무반장이 좋아했던 유행가

●십자가..



●전쟁을 막는 유일한 힘●

서른이 넘어서 군 생활을 하게 된 나에게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렸던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병이 되어서 내무반에 신고식을 하게 될 때, 고참의 엄포와 함께 신고식에서 반드시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는 요구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게 찬송가 434장을 하라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

고참들의 고함과 야유와 협박이 찬송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야, 그게 뭐야." "지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때 어디선가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들어보자"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그 쪽을 볼 수도 없었지만 끝까지 찬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내무반에서 한 고참이 내게 다가와 성경에 대해 묻고 성경공부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 고참은 제대를 했고 지금은 그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의 찬송을 통해 그의 영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완성하여 주심을 체험한 신병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병사-



◀눈물나는 밤엔 무명의 첫발을▶ "이렇다면 언니에서 아줌마가 된 증거 Best5"

- 【5위】 (외식후) "집에서 먹으면 고기가 몇근인데..."
- 【4위】 말끝마다 "너도 애 낳아 봐..."
- 【3위】 뭐든지 '하나 더' 달라고 한다.
- 【2위】 세수는 안해도 립스틱은 바르고 나간다.
- 【1위】 빈 자리만 보면 몸을 날린다.

엄마가 딸에게

-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주마
- 많이 공부하라
- 깊이 공부하라
- 계속 공부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한다
- 성실 근면하라
- 자기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라
- 대인관계가 좋아야 한다

주 일 예 배

(* 표는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Calvary" 다 같이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8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1(시 95)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487 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정덕수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1:29-32(신 112) 인도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예수님이 표적이라'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84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축석)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김종건 장로 가족, 2절:다같이)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8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4	김교섭	이지영	박병민, 이기중	김종건	김현수, 남형진
11	정덕수	정희자	박상옥, 이금선	김종우	민광호, 박기원
18	김종건	최기향	박정자, 정희자	김종원	박병민, 박상옥
25	이광희	최재학	양경배, 김동숙	김현수	박일영, 사카시다

일자	교회행사	모임, 회의
4		구역예배(9)
11	광복기념주일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3) 결식자 식사봉사(17)
18		약속의 아버지기도회(20)
25	이삭줍기	여선교회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저녁 6시	

◀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은몸에 햇살을 받고...." 암울한 시대의 아픔을 시로 달래다 그 봄을 누리지 못한 채 숨져간 시인, 그 시인이 갈망했던 광복의 달 8월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가 빛나는 나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높은 시민의식이 국력이 되어야 합니다.

-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바르게 사는 Korean"
1. 등록하셔서 갈보리가족되심을 환영합니다
* 조용건, 김미애 집사. 한나. 경원 ☎486-0547 ✉ 3/7 Eversleigh Rd. Takapuna
 2. 교우소식
* 박기향 집사(한정옥 집사 남편)께서 Auckland 대학으로 연구차(6개월) 오셨습니다
* 개업: 민광호, 김심홍 집사: Chocolate Shop "Sweet Station" (St Lukes Shopping Mall)
* 윤희권 집사 '한국가곡의 밤' 공연 : 이번주 토요일(10일) 저녁 7시
<장소> Victory Christian Church(98 Beaumont St, City)
* 이규임 집사: 사업차 한국방문 위해 지난 2일(금)출국.
 3. 이번주는 구역예배 주간입니다(매달 1회 구역예배)
* 구역장 모임: 예배 후 친교실
* 새로운 구역편성: ♣ 작은 구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로 구역식구, 교회,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 구역모임 목적으로 모입니다.
♣ 구역받아야 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와 전도로 작은 구역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 구역식구께서 전도한 가정은 같은 구역으로 편성됩니다
 4. 연초보다 성장한 교회규모로 인해 교우들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하반기 동안 교회내 여러 일들을 조금씩 나눠 봉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조금씩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갈보리 교우들께서는 수요 성경강해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에 목말라한 그였기에("I'm still hungry") 히딩크 감독은 명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나도 모른사이 든든히 서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6. 결식자 식사봉사: 17일(토)로 정정합니다. 17일(토) 10시-1pm. 제1여선교회.
 7. 교회간판: "갈보리교회당"으로 하였습니다
* 교회: 교회는 보이는 교회(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무형교회)교회로 나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고전 3:16)" 말씀대로 성도 개인이 교회이고 우리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은 교회당"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건물인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당을 나가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뜻으로 "갈보리교회당"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박물관에 갔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찢었던 창, 가시관, 못부터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대야와 수건 이 두 가지가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발을 닦아 주시고 계시기에 대야와 수건은 아직은 박물관에 놓을 수 없답니다